광주시민·외국인 어우러진 합창단 뜬다

광주국제교류센터가 매년 선보이는 5월 음악회 공연 모습. 〈광주국제교류센터 제공〉

광주국제교류센터 시민합창단 창단

단원 60명 모집…24일 오디션

발성 등 전문강사 지도 3개월간 연습

5월 27일 오월음악회 무대 공연

광주에서 외국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합창단이 만들어진다.

광주국제교류센터(Gwangju International Center)가 '2018 GIC 시민합창단' 창단을 준비하며 단원을 모집한다. GIC 시민합창단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광주 시민들의 문화 예술 활동 장려를 위해 기획됐다.

광주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5월음악회를 열어왔는데 그동안은 전문가 위주의 합창단이 주로 무대를 꾸몄다"며 "올해부터는 컨셉을 바꿔 외국인, 비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할 생각으로 합창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대중들에게 클래식은 어렵고, 거리감이 있는 대중적이지 않은 장르로 느껴진다. 클래식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클래식 음악을 통해 지역의 내·외국인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시민참여형 합창단를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합창단은 광주 지역 내·외국인 시민들로 6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만 19세 이상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오디션은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광주국제교류센터 1층 GIC 연주홀에서 진행되며 클래식 및 가곡 중 자유곡 1곡을 준비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27일에 개별통보하며 오리엔테이션과 첫 연습은 3월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합격자들은 3개월간 총 9회의 정기 연습을 한다. 매월 1회씩 전문 강사의 무료실기 지도가 제공된다. 지역의 전문 성악 음악가들로부터 발성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며 전문 강사와의 학습, 교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은 23일 오후 6시까지 광주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www.gic.or.kr/portal/board.php?bo_table=notice&wr_id=1518)에 접속해 공고문 하단의 신청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오월음악회는 오는 5월27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열린다. 정국주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을 이날 공연에서는 '하나된 세계'를 주제로 다양한 곡들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오월음악회는 광주국제교류센터 음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외국인들도 함께 참여하며, 출연진은 모두 자원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음악회 수익금은 매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인권·민주화 단체들을 지원하거나 각 국의 재난·재해 지역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광주국제교류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전국 최초의 국제교류센터다. 광주시 및 전남도 지역민과 외국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문화이해 증진 및 민간교류 등을 펼치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 신작

홀로그램 뮤지컬 인형극 '어린왕자의 선물' 인기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의 신작 홀로그램 뮤지컬 인형극 '어린왕자의 선물' 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어린왕자의 선물'〈사진〉 오픈으로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단체관람은 물론 주말 가족단위 관객들의 발길을 더욱 사로잡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극장 자체 제작 홀로그램 작품으로, 제작진이 순수 지역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관상' 등 영화의 특수효과를 만든 ㈜매그논 스튜디오와 28년간 어린이·청소년 전문 공연을 펼쳐온 극단 파랑새가 참여했다.

'어린왕자의 선물'의 내용은 이기적인 장미꽃을 돌보다 지친 어린왕자가 다른 별로 친구를 찾아 떠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을 다룬다.

한편 신작의 오픈과 함께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의 신학기 체험학습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

미디어아트 플랫폼이 2018년도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디어아트 체험교육'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로부터 예약이 줄을 잇고 있다. 플랫폼을 찾아오는 학교들도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북, 충청, 경상도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문의 062-670-7453~745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빛 2017'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25일까지

전국 젊은 작가 참여

송기철 작 '이미 여기에 늘 평화롭게 존재한다'

이인성 작 '뗏목 위의 두 사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 2001년 부터 열고 있는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은 국내 청년작가 중 창조성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작가를 지역별로 선정,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이다.

2017년에는 광주의 이인성(회화) 작가를 포함해 강성은(전북 익산·회화), 김지수(대전·설치), 송기철(부산· 설치·사진&영상), 윤동희(대구·설치·영상) 작가를 선정, '빛2017'전을 열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 작가들에 대해 임종영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이번에 선정된 30대 중반의 작가들은 개인의 특별한 경험과 삶의 본질에 대한 탐구, 인간과 자연의 공생, 사회 구조적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술관 1·2갤러리에서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각자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접할 수 있어 흥미롭다. 가장 먼저 만나는 송기철 작가의 '이미 여기에 늘 평화롭게 존재한다'는 동네에서 한번쯤 봤음직한 철제 대문과 방범용 쇠창살이 전시장을 가로지르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유령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삶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하고 있는 사회, 정치, 인종 차별을 이야기한다.

김지수의 '공중정원'은 식물과 사람의 상호 작용에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오래전부터 식물과 동물 등 생물체에 관심을 가져온 작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직접 키우는 '이끼'를 비롯해 그 위에서 발아된 식물들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2갤러리에 전시중인 윤동희 작가의 '붉은 밤' 시리즈는 한국 사회의 드러나지 않은 폭력의 실체를 고발하는 작품이다. 전시장 안 암흑 속에서 '붉은 빛'으로만 존재하던 작품들은 갤러리 입구에 놓인 플래쉬를 비춰보는 순간, 다양한 이미지들을 드러내며 실체를 보여준다.

이인성 작가의 작품에서는 늘상 등장하는 '주황색 점'이 흥미롭다. 개개인이 가진 다른 삶의 가치관과 욕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작가는 관람객들이 화면속 인물들에 주목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를 바란다.

그밖에 2011년부터 연필 드로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성은 작가는 "밤의 질감을 연필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작업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관람 전 1층에 마련된 다섯 작가의 인터뷰를 관람하고 전시를 둘러보면 좋다. 문의 062-613-71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미디어 338' 기획전 참여 작가 모집

광주문화재단이 미디어아트 특화 전시공간 '미디어 338' 상반기 기획전시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한다.

'미디어 338'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 관광레저기반 구축사업' 일환으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 마련된 복층 전시공간이다. 1층은 미디어아트 전시는 물론 실험적인 작품 설치가 가능한 융·복합 전시 공간이고, 2층에는 이이남 작가가 기증한 VR체험 작품 '혼혈하는 지구'가 설치돼 있다.

공모전 참여 분야는 평면·조형·기타 설치와 퍼포먼스 등 미디어와 연계한 모든 융·복합 장르다. 2명 이상의 개인 또는 팀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작품은 3월부터 5월까지 2차에 걸쳐 릴레이로 전시된다. 1차 전시는 3월 15일~4월 22일, 2차 전시는 4월 25일~5월 27일까지다. 전시를 진행할 팀에게는 ▲전시공간(96.39㎡) 및 기본 전시장비▲지원금 300만원 ▲언론 홍보 등이 지원된다. 전시 후에는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공간에 등록해 시민들이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19일부터 21일까지다. 문의 062-670-749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